트와이스, K팝 걸그룹 美 첫 주 음반판매량 최고 기록 쓸듯

미니 12집 '레디 투 비', 첫주 15만1000장 예상
오는 25일 자 '빌보드 200' 2위 예상…자체 최고

'트와이스(TWICE)'가 새 음반인 미니 12집 '레디 투 비(READY TO BE)'로 K팝 간판 걸그룹 명성을 확인하고 있다.

19일 K팝 업계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 10일 발매한 '레디 투 비'는 25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차트에서 트와이스 자체 최고 성적이다. 앞서 트와이스는 '빌보드 200'에서 2021년 11월 발매한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 O+T=〈3(Formula of Love: O+T=〈3)'로 3위를, 지난해 8월 발매한 미니 11집 '비트윈 원앤투(BETWEEN 1&2)'로 역시 3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레디 투 비'는 발매 첫 주 미국에서 15만1000장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K팝 걸그룹 첫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다.

현재 '빌보드 200' K팝 걸그룹 최고 순위는 '블랙핑크'가 작년 정규 2집 '본 핑크'로 세운 1위다. 그런데 이 음반이 1위를 차지했을 때 판매량은 10만2000장 상당이었다. '빌보드 200' 1위에 대진운 등도 중요하다. 실제 블랙핑크도 2020년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으로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했을 당시 '본 핑크' 첫 주 판매량보다 많은 11만장 상당을 판매했었다.

'빌보드 200' 순위는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점수에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를 합산해 매긴다. 미국에서 대중적인 인기가 덜해도 현지에서 음반을 구매해줄 확고한 팬층이 있다면, 높은 순위로 진입이 가능하다. 현지에서 팬덤을 형성한 K팝 그룹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 트와이스는 이번에 대진운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성과를 내 특기할 만하다.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월렌, 미국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 같은 인기 뮤지션들과 경쟁했다. 월렌의 새 앨범 '원 싱 앳 어 타임(One Thing At A Time)'은 이번 주 24만70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지난 주에 이어 '빌보드 200' 정상 등극이 확실시된다. 트와이스 '레디 투 비'와 같은 날 발매된 사이러스의 여덟 번째 정규 앨범 '엔드리스 서머 베케이션(Endless Summer Vacation)'은 11만8000장 상당의 판매량으로 3위가 예상된다.

트와이스는 미국 대중음악계 풀뿌리 인기의 상징인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에 발매한 첫 영어 싱글 '더 필스'를 통해 '핫100' 83위로 처음 진입했다. 지난 1월20일 발매한 두 번째 영어 싱글 '문라이트 선라이즈(MOONLIGHT SUNRISE)'로 '핫100'에 두 번째 진입하며 84위를 차지했다. '문라이트 선라이즈'는 '레디 투 비'의 선공개곡이기도 하다. '레디 투 비' '셋 미 프리'가 '핫100'에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세부 차트에서 어떤 성적을 낼 지가 트와이스 향후 활동에 방향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미 시장에서 공연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펼치는 네 번째 월드투어 '쓰리'의 앙코르 공연으로, K팝 걸그룹 첫 미국 스타디움 공연 기록을 썼다.

아울러 트와이스는 공연으로 계속 기록을 써내려간다.

오는 4월 15~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을 시작으로 호주·일본·북미 14개 도시에서 17회 공연하는 다섯 번째 월드투어 '레디 투 비(READY TO BE)'를 연다. 총 6회 스타디움 공연을 포함한 '자체 최대 규모' 투어다.

또 K팝 여성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빌보드 위민 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이달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YouTube Theater)에서 열린 '2023 빌보드 위민 인 뮤직'(2023 Billboard Women In Music) 어워즈에서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Breakthrough Artist) 부문을 받았다.

'빌보드 위민 인 뮤직'은 빌보드가 한 해 동안 음악 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프로듀서, 경영진 등에게 상을 수여한다. 트와이스가 수상자로 선정된 '브레이크스루 아티스트'는 음악 시장에서 의미 있는 도전을 이뤄내고 두각을 드러낸 가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해당 부문 역대 수상자인 이디나 멘젤(Idina Menzel), 토리 켈리(Tori Kelly), 마렌 모리스(Maren Morris), 카밀라 카베요(Camila Cabello)의 영광을 잇게 됐다.

트와이스는 '걸그룹 장인'으로 통하는 프로듀서 박진영이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CCO)를 맡고 있는 '걸그룹 명가' JYP엔터테인먼트가 2015년 내놓은 걸그룹이다. 데뷔 초창기엔 밝고 경쾌하며 에너제틱하고 구김살 없는 음악 색깔인 '컬러팝'을 내세워 인기를 누렸다. 점차 연차가 쌓이면서 음악도 자연스럽게 성숙해졌다.

특히 이번 '레디 투 비'에서 세련된 팝을 선보였다고 외신들이 호평하고 나섰다.

영국 음악잡지 'NME'는 "트와이스는 자신들의 음악을 채웠던 흥겨운 사운드를 좀 더 세련되게 부드럽게 바꾸고 있다"고 들었다. 또 "더 세련된 소리를 겹겹이 쌓여왔다. 걸그룹이 이를 위해 복고 장르로 눈을 돌렸고 '레디 투 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도 "이미 디스코 장르를 잘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트와이스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여놓는다. '셋 미 프리'는 질버덕거리는 신스 베이스라인과 극적인 스트링 긋기로 복고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영역으로 전환해 신선한 접근을 취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멤버 이탈이나 구성원의 변동 없이 나연, 정연, 모모, 사나, 지효, 미나, 다현, 채영, 쯔위 등 멤버 9명이 한 팀을 꾸준히 이뤄 성과를 점차 쌓아온 것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미국 음악잡지 '롤링스톤'은 '레디 투 비' 리뷰 중 트와이스에 대해 "트와이스는 한국 가요계의 검증된 베테랑들이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더 이상 꾸미는 연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두려움 없이 대담하게 추구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목소리를 찾고 있다"고 봤다.

'사장' 이서진, 매출 심각성 깨닫고 '불안'

'서진이네'의 희로애락이 담긴 에피소드가 유쾌한 에너지를 전파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서진이네'(연출 나영석·장은정) 4회에서는 한바탕 바쁜 주말 영업을 끝낸 직원들이 달콤한 휴식 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주말만큼 많은 손님을 예상했던 사장 이서진은 생각과 달리 한산한 홀에 분노해 폭소를 자아냈다.

'노(NO) 휴일 정책'을 고수하던 이서진은 초토화된 직원들을 보고 하루 휴무를 선언하며 직원 복지를 실행했다. 휴무일이 되자 직원들은 패들보드, 카약, 러닝, 라이딩, 수영 등을 하며 따로 또 같이 여유를 즐겼다. 쉼을 만끽하는 직원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멕시코 바칼라르 풍경이 더해져 힐링 타임을 선사했다.

다음 날, 영업 4일 차에는 손님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직원들과 반대로 자신감 넘치던 이서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서진은 손님이 두 테이블뿐인 상황에서 매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불안해했다.

손님 두 팀이 더 왔다 간 후 브레이크 타임 중 이서진은 최우식에게 전단지 배포를 지시했다. 최우식이 가게로 돌아와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바깥 상황을 설명하자 시무룩해진 이서진은 아예 밖으로 나와 손님을 기다렸다.

무엇보다 "오늘 어떨 것 같아?"라는 제작진의 물음에 이서진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서진은 부정, 분노, 극대노, 타협, 우울 순으로 분노 5단계를 거쳤다. 신메뉴로 출시한 과일 주스 판매량보다 뷔가 한 잔을 더 마셨다는 이야기에 6단계(?)인 해탈까지 찍어 재미를 더했다.

제작진은 "매출 부진으로 상심에 빠진 이서진이 다시 보조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다음 방송에서 기대해달라"고 청했다.

지민, '페이스' 선공개곡 110개 지역 아이튠즈 1위…솔로활동 본격화

美 '지미 팰런쇼' 솔로 첫 출연…'페이스' 무대 첫 공개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28·박지민)이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지미 팰런쇼)에 솔로로 처음 출연한다.

18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은 오는 23일 '지미 팰런쇼'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지미 팰런과 이번 솔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4일엔 당일 발매되는 첫 공식 솔로 앨범 '페이스' 퍼포먼스 무대를 처음 선보인다.

지민의 해당 프로그램 출연은 지난 2021년 7월 방탄소년단으로 출연한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버터(Butter)'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를 열창했다.

빅히트 뮤직은 "지민은 방탄소년단으로 '지미 팰런쇼'에 출연했을 당시, 지미 팰런과의 남다른 호흡과 예능감을 드러내며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유쾌하게 이끌었다. 솔로 아티스트로 첫 출연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전했다.

지민은 전날 오후 1시 전 세계 음원사이트에 '페이스' 선공개곡 '셋 미 프리 파트 투(Set Me Free Pt.2)'를 발매했다.

해당 곡은 이날 오전 9시까지 기준으로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등 전 세계 110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음원과 함께 유튜브에 공개된 '셋 미 프리 파트2' 뮤직비디오는 공개 직후 다수의 국가/지역에서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고, 이날 오전 9시 기준 1385만 뷰를 넘겼다.

'셋 미 프리 파트2'는 아픔과 슬픔, 공허함 등 내면의 다양한 감정들을 떨치고 자유롭게 나아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힙합 장르의 곡이다.

빅히트 뮤직은 "지민은 '페이스'에 지난 2년간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진솔하게 녹이면서도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 아티스트 지민으로서 새 시작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마약의혹 유아인, KBS 한시적 출연 제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프로포폴·마약 투약 혐의로 KBS 한시적 출연제한 대상자가 됐다.

17일 KBS에 따르면, 유아인에게 한시적 출연제한 조치를 내렸다. 추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출연제한 조치가 내려진 연예인은 기존 방송분이 전파를 타더라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

유아인은 2년간 프로포폴을 100회 가량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총 네 종류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유아인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외에 코카인·케타민 성분도 검출됐다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다정한 미친놈' 배우 이도현, '칼춤 추는 망나니'…'더 글로리'

다음달 26일 '나쁜엄마' 통해 활동 이어갈 예정

배우 이도현이 '더 글로리'에서 변화무쌍한 연기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이도현은 10일 공개된 넷플릭스(Netflix)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에서 문동은(송혜교 분)의 맹목적인 조력자이자 성형외과 의사 주여정 역을 연기했다.

다정다감한 매력과 섬뜩함을 오가는 온도차로 '다정한 미친놈' 주여정 캐릭터를 완성한 이도현은 학교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동은을 위해 '칼춤 추는 망나니'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절대적인 조력자 역할을 했다. 그는 '망나니는 어명의 이유를 묻지 않아요'라는 맹목적인 약속으로 안도감을 주는가 하면, 다정한 모습으로 감정이 메마른 문동은을 웃게 했다.

뿐만 아니라 다정한 미친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박연진(임지연 분)과의 장면도 화제다. 주여정 병원에 온 박연진에게 '그거 아세요? 공기를 다 안 빼고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담담히 경고해 소름끼치는 반전을 선사했다. 이처럼 이도현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가해자들과 대비되는 차분한 어투로 극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특히, 주여정은 아버지를 살해한 강영천을 마주하자, 차오르는 눈물과 함께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섬뜩한 미소로 일관하는 강영천의 모습에 주여정은 울분을 삼키며 더욱 처절한 '복수의 여정'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도현은 오는 4월 26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수목드라마 '나쁜엄마'를 통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